

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자신감을 잃은 구직자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주는 일이 내 일이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상담일 수 있지만, 내게 이 일은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움직이도록 돕는 고귀한 일이다.

상담에서 만나는 여성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끊긴 사람, 오랜 돌봄으로 자신을 뒤로 미워온 사람, 다시 일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 자신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고,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조금 낯선 감정을 마주할 때가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 직업상담사라는 이유로, 때로는 나의 역할보다 성별이 먼저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다른 기관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을 만날 때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다. 처음 인사를 나누면 가끔 상대의 표정에 짧은 놀라움이 스친다. “남성 상담사시군요?” 라는 말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말로 표현되지는 않아도 조금 신기하다는 눈빛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시선 안에는 호기심도 있고, 때로는 “여성 구직자를 상담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담겨 있는 듯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조금 어색했다. 나는 직업상담사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먼저 ‘남성’으로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성 구직자를 상담하는 현장에서 남성 상담사는 조금 낯선 존재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다. 나의 전문성이나 역할보다 성별이 먼저 질문이 되는 순간, 나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그 시선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력단절, 육아, 돌봄, 재취업의 두려움은 여성들이 더 많이 겪어온 현실이고, 그 안에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삶의 무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상담을 할 때 더 조심스럽게 듣고, 더 천천히 질문하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말할 수 없고, 내가 남성이라고 해서 모른척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상담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묻고, 더 듣고, 더 배우려 한다. 그것이 내가 현장에서 실천하는 존중의 방식이다.

여성정책은 분명 필요하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돌봄의 책임으로 경력이 끊기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안과 편견을 겪는다. 나는 그 현실을 매일 가까이에서 본다. 한때 자신감 있게 일했던 사람이 “제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순간, 정책의 필요성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로 다가온다.

그런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도 돌아보게 되었다. “왜 경력이 끊겼을까?” 보다 “그동안 어떤 책임을 감당해왔을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왜 자신감이 부족할까?” 보다 “사회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증명을 요구했을까?” 를 보게 되었다.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일은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삶의 시간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동시에 나는 양성평등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다.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배제되거나,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진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 성평등은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남성도 돌봄을 말할 수 있고, 여성도 생계를 책임질 수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역할을 성별이 아니라 역량과 태도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 현장에서 성별이 아니라 전문성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나는 여성정책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또 다른 성별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보다 더 신중하게 만든다. 여성 구직자의 삶을 대신 살아볼 수는 없지만, 그 삶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더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것. 나는 그것이 상담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양성평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남성의 역할을 단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각자가 가진 경험의 차이를 경쟁이 아니라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 그것이 내가 현장에서 배운 양성평등이다.

나는 앞으로도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직업상담사로 일할 것이다. 누군가의 경력을 다시 이어주는 일을 하면서, 나 역시 양성평등의 의미를 계속 배워갈 것이다. 여성정책의 현장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여성이기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고, 남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단정되지 않는 것.

결국 양성평등은 어느 한쪽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넓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